

무주택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

전주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진

전주시에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5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민간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 일부를 시에서 지원해 임차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는 제도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2억8천만 원 규모의 예산을 마련했으며, 신청한 달

지난 1년 이내 납부한 전세자금 대출 이자(2024년 10월~2025년 9월)에 대해 최대액 150만 원(최대 연3%)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자격은 △혼신신고 7년 이내 (2018년 1월 1일 이후)의 혼신부부 △부부 모두 무주택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전주시에 동일주거권 주민등록을 둔 경우 △2025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분반 또는 배우자 명의의 은 금융권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분반 또는 배우자 명의로 된 대차계약의 체결하고 계약한 주택전

세보증권 3억 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에 실제 거주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무주택 신흥부부는 오는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수시지원 10만 건에서 접수한 뒤, 미려, 시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자녀수와 부부 합산 연소득, 혼인 기간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단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주택(영구·국민·행복·매일·전세)에 입주한 △주택전세자금 융도가 아닌 대차 규모, 자녀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전세 및 지자체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참여 자 △무상 자영업자 참여 세대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을 참고하면 된다. 거주지 등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김성수 전주시 건축과장은 “이번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택 가격 불안정과 금리상승으로 가중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거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함께기부 챌린지’ 진행

전주시복지재단(이사장 윤방삼)은 15일부터 오는 11월 14일까지 두 달간 시민사각마다 해소와 민간 자원 확보를 위한 '전주함께기부 챌린지'를 진행한다.

'전주함께기부 챌린지'는 전주 시민이 함께 어려움에 처한 이웃의 위기 극복을 돕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매일 1만1004원 이상 정기기부를 약정하는 기부천왕을 발굴하는 캠페인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전주식복지재단 누리집의 챌린지 배너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하거나, 각 동 주민센터 등에 비치된 포스터의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다.

재단은 해당SNS 또는 재단 누리집 게시판을 통해 챌린지 참여 인증을 한 시민 중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모바일 음료 쿠폰을 제공하며 이벤트도 진행한다. /권희정 기자

/권희성 기자

**‘전주막걸리축제’ 음식부스
참여업체 19일까지 모집**

맛의 도시 전주시가 '전주페스타 2025'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전주막걸리축제'를 함께 준비할 음식부스 참여업체를 모집한다.

시는 오는 31일과 11월 1일 전주비엔나 대학교 대운동장에서 개최되는 '2025 전주막걸리축제'에서 음식부스를 운영할 참여업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막걸리 안주 판매 업체와 오징어와 전지갑의 다양한 음식 판매 업소 등 총 2개 업체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서를 작성해 15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주시청 기획경제과/권희성 기자

/권희성 기자



2025년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 안내문 붙은 전주역

추석 연휴 철도 승차권 예매일인 15일 전주역 매표소에 추석 연휴 승차권 예매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참관

국제 스포츠대회 운영 노하우 청취 · 관계자들과 교류

우범기 전주지사가 '제20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통해 국제 스포츠대회 운영 노하우를 배웠다.

우범기 시장은 15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20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옵저버(Observer) 프로그램에 참여해 국제 스포츠대회 운영 전반에 관한 경험을 공유받고, 국제 관계자들과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 시장을 비롯한 전주시 대표단은 이날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진행된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오전 참가를 참관한 후,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옵저버 프로그램은 세계육상연맹

(WA) 회장 및 사회총장 환영사에 이어 대외 커뮤니케이션 설명이 이어졌으며, 지니 카루나케이션 세션에 참석해 운영 노하우를 청취했다.

전주지대 대표단은 이어 진행된 VIP 오찬에서 영국 런던, 독일 뮌헨, 인도 아예다바드 등과 함께 참여한 국제 스포츠도시 관계자들과 교류를 이어갔다.

특히 이번 오후바 프로그램에서는 경기 운영과 미디어 지원, 지속가능성 전략 등 메가 이벤트 운영 경험에 중점을 두며, 이는 시가 현재 건설 중인 복합스포츠터온 내 육상경기장 건립

및 향후 국제대회 개최 역량 강화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앞으로는 세계 주요 스포츠대회 참관과 교류를 지속해나가는 등 국제 스포츠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확고히 다져 나갈 계획이다.

우병기 전주지사는 “전주가 국제 스포츠대회의 운영 경험을 직접 배울 수 있는 향후 국제대회 유치와 성공적 개최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복합스포츠타운 조성과 육상경기장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들에게는 우수한 체육 인프라를, 전주에는 국제적 위상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모여라! 전주에서 청춘이 터진다!’

20일 '전주시 청년의 날 행사' 개최

전주시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주시민 일대 노숙광장 등 5개 시청각 시설이 함께 이루어지는 소통의 장인 '2025 전주시 청년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모여! 전주에서 청춘이 타진!'이 슬로건인 이번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전주지역 청년단체와 청년이음전주부가 직접 기획과 운영에 참여해 청년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날 오후 2시부터는 청년들 사이 1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축제 제안 아이디어 시상식을 겸한 시상식이 열린다.

이와 더불어 초청 예술인 릴레이 버스공연, △심리·진로·취업·법률 상담이 가능한 전문 상담 부스 △청년 고용점 전시 판매와 체험이 가능한 문화체험·플리마켓 부스 △노블리와 체험을 통해 교류를 넓히는 청년 놀이터 이벤트 등이 펼쳐진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북여
족대단·덕진지역△경원산하의
재공 및 이벤트 △문화화사
관의 인생네트 짝기 체험 △
시 인구청년정책국 홍보부스
등 다양한 협업 프로그램도
된다.

이에도 이날 행사장에는 청년
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
채널과 이벤트가 진행된다.

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청
이 서로 교류하고 정책 정보
할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향
년 문화와 정책을 알리는 소용
으로 꾸준히 발전시켜 나갈
이다.

영숙 전주시 청년정책과장은
전주시 청년의 날은 청년들
로 교류하고 목소리를 낼 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
청년이 지역사회 속에서 주
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류
통의 길을 적극 확대해 나가
고 있다.

(권희성 기자

권희성 기자

‘전주형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22일까지 모집

전주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허전, 이하 진흥원)은 첨단 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전주형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덕진권역 활성화와 XR·메타버스기반 기술융합 생태계 조성 을 목표로 추진된다.

[illegible]

는 향후 정책과제 지원과 지역 연계 사업으로 발굴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지혜로운 민·관 협력 모델을 통한 서비스 개발과 특성화 프로젝트 발굴을 중심으로 혁신권 활성화와 XR·메타버스 기술융합 생태계 조성 등에 힘을 기울인다.

또한 지혜로운 이번 열화인스턴스를 통해 지역 산업 인프라와 결합한 △드워킹 메타버스 콘텐츠 발굴 △일자미환출 △청년 생활 활성화 등 다층적 가치를 도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열화인스턴스 운영을 총괄하며, 지역 발원인과 전문가 컨설팅, 인프라 지원 등을 제공하게 된다.

/권희성 기자

/권희성 기자



춘향전의 무대